

# 보도자료

“국민 누구나 일할 수 있고 일을 통해 행복한 나라”

▶ 보도일시: 2014.4.10.(목) 석간  
<인터넷 4.10(목) 06:00 이후>

▶ 총 2 쪽

❖ 근로개선정책과장 박 광 일  
행정사무관 최 대 술 ☎ 044-202-7529  
서울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개선지도1과장 김 상 수  
근로감독관 김 경 희 ☎ 02-2250-5868  
중부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개선지도1과장 이 삼 근  
근로감독관 장 기 익 ☎ 032-460-4580

< 본 자료는 <http://www.moel.go.kr>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>

## 서울·경인지역 시내버스 운송업체 수시감독 실시

- 4.10.~4.23.(2주간), 14개사 감독 실시 -

□ 고용노동부는 서울 및 경인지역 소재 시내버스 운송업체 중 버스 1대당 운전기사 배치인원이 적어 장시간근로가 의심되는 14개 업체\* (서울 9개사, 경인 5개사)를 대상으로 사업장감독을 실시(4.10.~4.23)한다.

\* 시내버스 11개사(서울 7개, 경인 4개)/ 마을버스 3개사(서울2, 경인1개)

○ 이번 실시하는 감독은 지난 3월 19일 밤 송파구에서 발생한 시내버스 연쇄 추돌 사건과 관련하여 논란이 되고 있는 운전기사들의 장시간근로 및 대리운행 등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노동관계법 준수 여부를 집중 감독한다.

- 주요 감독내용은 사업주의 묵인하에 장시간근로를 유발하는 관행과 근무형태, 근로시간, 연차유급휴가 미부여,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상 근로조건 관련 부분(근로시간, 휴게시간, 휴일, 휴가 등)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고,

- 감독 결과, 법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토록 하고 미시정시 즉시 사법처리할 예정이다.

□ 이에 따라 고용부는 우선 서울과 수도권 소재 버스운송업체를 중심으로 감독을 실시하고, 필요시 전국으로의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.

□ 임무송 근로개선정책관은 최근 장시간근로 논란이 있는 버스 사고 사례를 지적하면서 “여객운송업의 경우 국민의 생활과 안전에 많은 영향을 미치므로 장시간근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·감독을 강화할 것”을 지시하였다.

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 최대술사무관(☎ 044-202-7528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